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30-40대 기혼여성의 생애사 연구

A Life History Study of Married Women in Their 30s to 40s with Experience in Parental Divorce

전보영(Bo-Young Jeon)^{1*}, 조희선(Hee-Sun Cho)²

¹Dept. of Consumer &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²Dept. of Consumer &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life experience of married women in their 30s to 40s who have experienced parental divorce.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towards the women, this study takes a life history research approach. The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 are 8 women who have experienced parental divorce and are now married with children. The data were gather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were analyzed through the spiral of analysis, following the process of Wolcott's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experienced emotions such as fear, anger, and lack of affection. Second,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al divorce had negative effects on the participants'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elf concept and in turn, participants experienced anxiety and withdrawal fro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ome had difficulties in concentrating on their schoolwork, which was caused by psychological effects from their instable home environments and some were negligent at school due to their parents' indifference or as an act of rebellion towards them. Third, although participants displayed interest towards the opposite sex, fear towards the opposite sex or unrealistic expectations led to difficulties in forming relationships. Participants also confessed that although they married so that they could escape their original family and form a new happy one, they experienced a rocky start at the beginning of their marriage. Fourth, parental divorce had a lifelong impact on children. Even after the children became adults, parental divorce affected each key stage of transition in life such as dating, choosing one's spouse, marriage, and child rearing. Fifth, participants displayed a strong attachment to life under the assumption that only they themselves can be depended on. This led to their strong commitments to a successful marriage without the possibility of divorce. In conclusion, parental divorce is not a transitory or incidental event. Rather, it becomes a part of the children's lives with lifelong implications.

▲주제어(Key words): 부모이혼(parental divorce), 생애사 연구(life history), 기혼여성(married women), 전이과정(transition Proces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혼은 당사자인 부모에게나 자녀에게 모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을 발생시킨다(P. R. Amato, 2000). 이혼은 매우 고통스러운 생활사건 중 하나로 이혼 후 가족은 경제적 불안정성, 자녀양육의 부담, 사회적 위축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어려움은 이혼 후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J. Son & G. Han, 2006; S.

• 본 논문은 전보영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201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함.

* Corresponding Author : Bo-Young Jeon, Department of Consumer &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25-2,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Korea, tel: +82-2-760-0507, E-mail: by63@skku.edu

Ok & M. Sung, 2004). 그러므로 이혼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어려움 일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이혼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이지 않다. 1970년대 후반부터 높은 이혼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이혼가족 자녀 연구에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많았다(P. R. Amato & B. Keith, 1991; E. M. Hetherington, 1989, 1993). 이에 비해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이라는 경험이 오히려 삶의 과정이자 도전으로 받아들여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으며, 본인의 삶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L. A. Kurdek & A. E. Siesky, 1980; S. O, 2001; H. Yoo, 2001). 부모이혼을 경험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상이하다. 그러므로 부모이혼이라는 사건의 결과 혹은 이혼 후 적응과정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는 부모이혼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또한 부모이혼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 다각도로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필요성이다.

두 번째 연구 필요성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여러 가지 가족문제와는 달리 이혼은 지속적으로 존재해 온 문제라는 점에 있다. 오랜시간 지속되어 온 문제가 최근 들어 더욱 새삼스레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까닭은 이혼율의 증가 때문일 것이다. 이혼율의 증가는 이혼법의 개정으로 이혼이 쉬워졌다는 점과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Y. Kim, J. Park, & J. Choi, 2010). 특히 우리사회의 이혼율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70년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이 0.4건이었던 것이 2014년에 2.3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4년 통계를 살펴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부부의 구성비는 전체 이혼의 49.5%에 해당된다. 이는 2014년 한해에 발생한 115,520건의 이혼 중 57,179건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이다(Statistics Korea, 2015). 자녀가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이다. 특히 가족에서 이루어진 사회화는 자녀가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혼가족은 자녀에게 일차적인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구조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해 취약성을 가질 수도 있다. 부모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한다는 것은 부

모이혼을 경험하는 자녀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녀가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점점 늘어나는 이혼에 대비하여 그들의 자녀가 삶에 적응하기 위하여 개인적·가족적·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부모의 이혼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알아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약자의 개념에서 출발한다기보다는 더 많은 이혼가족의 자녀가 사회 속으로 진입 할 것이고, 이혼가족의 자녀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부모이혼으로 변화된 삶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모이혼을 경험한 자녀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부모, 교사, 상담자들에게 또한 당사자들에게 삶의 적응에 도움이 될 만한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세 번째 연구 필요성은 지금까지 부모이혼을 경험한 자녀에 관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며, 최근 연구동향에 발맞추기 위해서이다. 이혼가족에 대한 초기연구는 주로 이혼이라는 사건 자체와 자녀의 적응행동 양상과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70년 후반에 '결손가족' 자녀 연구로 시작하여(H. Cho, 1978), 1990년대부터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초기에는 서양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시작으로, 어떤 요인이 부모이혼 후 자녀 삶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반가족¹⁾과 비교분석을 해왔다. 즉, 가족의 구조적 해체의 결과로 현재 자녀들의 적응행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단선적인 상관관계만을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는 가족구조와 적응의 양태에 관한 것을 위주로 연구했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 전·후 과정과 전체적인 삶의 과정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이 학령기와 청소년기로 집중되어 성인기까지 더 나아가 성인이 되어 생식가족을 형성한 후까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한계성과 최근 연구동향을 고려하여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이혼가족 자녀의 생애와 가족과정을 충실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질적연구 방법 중에서도 생애사 연구는 생애초기의 경험부터 현재 삶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삶의 과정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가족역동을 자세하게 살펴 볼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30-40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생애사를 연구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일반가족이라 함은 이혼가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이혼가족을 의미한다. 대부분 초혼양부모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단, 본 연구에서는 용어 사용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가족으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이상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30-40대 기혼여성의 삶을 다각도로 이해하기 위함이다. 즉, 단편적 결과의 도출이 아닌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여 삶의 연장선상에서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그들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따라 연구결과는 이혼당사자인 부모와 그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위한 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적응방법과 극복방법을 통해서 이혼가족의 부모와 자녀에게 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예상되는 어려움을 알려줌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어려움에 대해서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들을 위한 교육적, 사회복지적 또는 정책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자 기대효과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문제를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30-40대 기혼 여성의 생애는 어떠한가?'로 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최초의 기억부터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까지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기혼여성들이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아 왔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그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심층면접을 통해서 부모이혼을 경험한 기혼여성들의 정서와 자아개념 형성 및 발달, 대인관계, 학업성취, 이성교제, 배우자 선택과 결혼, 결혼생활, 자녀양육 등 전이과정에서의 삶에 경험에 미친 부모 이혼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부모이혼 경험의 지속성을 통해 부모이혼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처럼 전이과정에서의 삶의 경험에 따라 생애 과정을 탐색하는 것은 이들의 삶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선행연구고찰

본 연구에서는 부모이혼을 경험한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중에서 부모이혼이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심리적 측면과 사회관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심리적 측면에서는 정서와 자아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관계적 측면에서는 대인관계,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 이성교제 및 결혼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1. 부모가 이혼한 자녀의 심리적 측면

1) 정서

부모이혼이 자녀의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부모이혼 후 2년간 자녀들은 많은 정서적 고통,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E. M. Hetherington, 1989, 1993). 하지만 모두 비슷한 정도의 정서적 고통과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갈등수준, 양육부모의 정서 상태 등 그 밖의 개인적·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갈등수준에 따라서 부모이혼은 자녀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이혼 전 부모의 갈등수준이 높은 자녀는 이혼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갈등수준이 낮은 자녀는 이혼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높은 갈등수준의 자녀는 부모 이혼이 지속적인 갈등상황에서 겪은 혐오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긴장과 불안을 완화시켜 주지만, 낮은 갈등수준의 자녀는 부모이혼으로 인한 생활변화(경제적 감소, 가난한 지역으로 이사, 친구의 상실, 한쪽 부모의 상실 등)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 보다 더 부정적인 스트레스 상황으로 지각되기 때문이다(A. Booth & P. R. Amato, 2001). 즉, 부모의 이혼에 의한 정서적 어려움은 자녀가 겪는 스트레스 상황 정도의 증감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부모이혼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은 이혼 이후 기간이 길수록, 스스로 다양한 문제해결방식을 많이 이용할수록, 양육부모와 긍정적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그리고 비양육부모와 접촉이 많을수록 더욱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고 하였다(H. Jung, 1993). 가족 경제수준이 그대로 이거나 나빠진 경우, 비양육부모와 불규칙적으로 만나는 경우에 우울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 Yoon, M. Lee, N. Kim, & H. Jeong, 2012). 또한 부모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이 느끼는 자책감, 분리불안이나 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환상 등의 부정적인 정서는 후일 자녀들의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S. Lee & C. Kim, 2003).

다양한 질적연구에서도 부모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정서, 부모이혼에 대한 부인, 부모의 재결합을 소망하는 재결합 환상, 유기불안, 부모 사이에 끼인 불편하고 곤란한 상태 등 부정적인 정서가 고스란히 나타났으며, 외로움을 느끼거나, 부모를 그리워하며 혼자 참거나, 어려운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는 등 정서적인 고립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또한 부모에 대한 저항감이 많았으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와 불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불안정한 정서와 연결되어 있었다(K. Choi, 2007; J. Kweon & I. Park, 2002; H. Yang, M. Jun, & H. Kim, 2014).

정리하자면, 부모이혼을 경험한 자녀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부정적인 정서를 적게 경험하거나 단기간 경험하기도 한다. 이는 이혼 전 부부의 부모갈등 정도가 높고, 부모의 심리적 적응정도가 높고, 이혼 후 적응기간이 길고, 문제 해결방식이 다양하고, 양육자와 긍정적인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가족의 경제수준이 악화되지 않고, 비양육자와의 만남이 규칙적으로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정적인 정서를 덜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경험한 부정적인 정서는 표출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지 않고 억누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2) 자아

부모이혼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등 자아개념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자녀의 인식, 부모이혼 스트레스,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 상실감 등 부모이혼에 대한 자녀의 인식에 따라서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혼가족 청소년 집단과 일반가족 청소년 집단은 가족 구조의 형태에 관계없이 양육적인 부모자녀관계가 결핍되었을 경우에 모두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 Lee & C. Kim, 2003). 또한 부모이혼은 자녀의 문제행동, 주양육자의 양육행동, 그리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모두 영향을 주었다. 부모의 이혼 자체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혼가족 주양육자의 양육행동이 일반가족의 양육행동에 비해서 덜 온정적, 수용적이고 더 거부적, 제재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아동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고 이는 아동이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는데 영향을 미쳤다(H. Hwang, H. Cheon & K. Ock, 2010). 부모이혼 후 자녀가 경험한 이혼 스트레스는 이혼가족 자녀의 적응과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자아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부모자녀관계와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이혼가족 자녀의 심리행동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S. Ju, 2007).

이혼가족 청소년의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인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으며, 사회적 유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양육부모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끼치고,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성의 정도가 높아지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 Cho, 2010).

한편, 질적연구 결과에서는 조금 다른 개념의 자아형성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었다. 부모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은 나이에 비해 비교적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에서 자신을 돌보는 자로 인식하면서 부모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성인기적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 Jung, 2008; H. Kim, 2004; J. Song, 2010). 이혼가족 자녀들은 부모도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긍정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기도 하고, 이로 인해 일찍 자율성이 부여되어 양육자인 부모와 갈등을 경험하지 않거나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순종적인 자녀로 성장하기도 하였다(D. Jang & K. Lee, 2011; H. Kim, 2004). 이처럼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자신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작용이지만, 반대로 이러한 기대와 책임은 이혼가족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였으며, 가족을 돌보는 것에 익숙해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는 희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S. Jung, 2008).

대부분의 양적연구 결과들은 이혼가족 자녀들이 경험하는 가족구조 변화가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관성은 가족의 구조적 환경 변화 자체보다는 기능적 환경 즉 부모이혼 후 변화된 부모자녀 관계, 이혼스트레스,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 부모 간의 협력, 양육적인 태도, 갈등 조절능력 등과 같은 매개변인의 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이 한층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처럼 부모이혼이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앞서 제시한 다른 요인들을 매개로 해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적연구 결과에서는 부모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이 역할 확대를 통한 부모화를 경험하면서 자아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나, 삶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강박적으로 모범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부모가 이혼한 자녀의 사회관계적 측면

1) 대인관계

부모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의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는 연구방법과 관계없이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P. R. Amato(2000)는 부모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이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혼가족의 아동은 신뢰를 형성하거나 분노를 조절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과 같은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혼가족의 아동들은 이혼 전부터 많은 부부갈등에 노출되었고, 특히 이혼과정 중 갈등이 심한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으며, 이혼 후에도 안정적 환경을 확보하지 못하고 부부 간 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자녀들의 대인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H. Park & M. Yon, 2004). 또한 대인관계의 현신을 다소 경계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 스스로 덜 긍정적이고 낮은 관계의 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B. Ailsa & D. Rosemary, 2000). 뿐만 아니라 부모이혼은 그들의 생애 과정을 붕괴시켰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지속시켰다고 하였다(C. E. Ross, 1999). 더불어 이혼가족의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대인관계문제,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H. Lee, 2004).

부모 이혼 후 대인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 Jang and K. Lee(2011)의 연구에서는 '달라진 세상의 벽을 느끼다'라는 표현으로 이혼가족의 자녀들이 부모이혼으로 그 전과 달라진 주변의 시선에 당혹감을 느꼈고, 대인관계의 위축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O. Song, K. Kim, and H. Kwon(2008)은 부모이혼을 겪은 대학생 자녀들은 부모의 심한 갈등과 이혼으로 인해 부모의 대한 부정적인 정서들을 경험했으며, 그것에 대한 회피적인 대처를 통해 사회적 위축감과 자아상의 손상을 보였다. 하지만 개인적·사회적 특성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하였다. 부모이혼 이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대인관계 기술, 적극적인 성격, 우수한 학업 성취, 모범적 태도, 재능 등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지적 부모, 형제, 친구, 교사 등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며(H. Kim, 2012), 공동체의 도움, 대인관계의 발달, 의지할 수 있는 남매 등 좋은 대인관계를 부모이혼 후 자녀의 적응을 돕는다고 밝혔다(H. Kim, 2015).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이혼이 자녀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모이혼을 경험한 모든 자녀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기보다는 심한 부부갈등에 오래 노출되었거나, 부모 이혼 전후 안정적인 생활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 중 한명이라도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자녀가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능력과 사회의 지지적인 환경이 부모이혼으로 비롯된 대인관계의 부정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

부모이혼은 자녀들의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E. M. Hetherington (1989, 1993)은 이혼 후 2년이 경과하면 대부분의 부모와 자녀가 비교적 원만한 적응을 보였지만, 일반가족에 비해 이혼가족 남아들은 반사회적 행동화·강압적·비협조적 행동을 보이고 또래관계와 학업성취에도 더 많은 어려움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반해 부모이혼이 자녀의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의 응집력, 사회의 지지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 Jang and K. Jang(2009)은 이혼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가족보호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가족의 응집력이 높고, 정서적 지지가 강하고,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며,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이혼가족 자녀의 학교적응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혼가족 아동은 일반가족 아동에 비해 학습문제, 대인관계문제, 행동문제 등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이는 부모의 이혼 그 자체보다는 이혼한 부모의 낮은 부모효능감과 민주적인 부모역할수행 저하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H. Lee, 2004).

학교적응은 이혼가족 자녀와 일반가족 자녀 간에 차이가 없으며, 이혼가족 자녀들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과 교사지지, 자아존중감,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Y. Nam, 2010). 그러나 두 집단 간 정서, 자아 강도,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 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긍정적 정서를 보다 적게, 자아 강도는 낮게, 사회적 지지는 보다 적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에서도 적응도가 낮았다(S. Chae & Y. Lee, 2011). J. Lee and H. Lee(2007)은 높은 학습능력 및 자기효능감,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 및 높은 교육적 관심과 개방적 의사소통, 친척의 지지, 또래의 인정과 지지, 교사의 지지 등이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로 나타났다.

학업과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혼가족의 자녀가 일반가족의 자녀보다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와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모두 존재한다. 이는 단순히 부모이혼이 자녀의 학업과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다는 판단이다. 부모이혼과 자녀의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매개요인으로는 가족응집력이 클수록, 정서적 지지가 많을수록,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민주적인 양육태도 방식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교사의 지지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고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성교제 및 결혼

부모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성교제 및 결혼과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부모이혼이 직접적으로 자녀의 이성교제 및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와 개인의 특성과 부모-자녀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다는 결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혼가족 자녀들의 이성교제 및 결혼에 대한 인식이 후일 성인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지속성에 대한 믿음이 약하며, 혼전동거와 이혼에 대해 비교적 허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결혼에 대한 낮은 기대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결혼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이라는 결과가 있다(Jennings, Salts, & Smith, 1991). 같은 맥락에서 S. E. Jacquet and C. A. Surra(2001)는 이혼가족에서 자란 여자는 일반가족에서 자란 여자보다 이성관계에서 덜 신뢰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지 못하며, 양가감정과 갈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밀한 이성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미래의 결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으며, 이성과의 관계에서 신뢰감을 가지는 것과 감정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C. Cartwright, 2006; L. B. Jessica, I. C. Sandra, & E. L. Mary, 2007). 이런 이유에 대해서 E. R. Katia, A. H. Debra, and A. E. Lauren(2014)는 부모의 부부갈등의 노출이 성인초기의 관계지속성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파트너와의 관계형성과 신뢰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였고, M. R. Sanders, W. K. Halford, and B. C. Beherns(1999)은 부모가 이혼과정 동안 혹은 이혼한 이후에 보여주는 갈등적인 관계는 자녀들이 후일 성인이 되어 이성관계를 맺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이러

한 이혼가족의 자녀들은 이성교제 파트너와 동등하고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곤란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N. Kim(2006)는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스스로 본인의 긍정적인 모습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서 자유롭지 못함을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성교제 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J. S. Wallerstein(1991)은 조사대상자인 이혼가족 자녀들의 절반이 결혼했을 때 그들 또한 결혼초기에 심한 부부갈등을 경험하며 결국 자신의 부모처럼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이혼을 경험한 아내는 부모이혼을 경험한 남편보다 자신의 결혼생활에서 부부갈등이 발생했을 때 한층 더 부정적인 의사소통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M. R. Sanders, W. K. Halford, & B. C. Beherns, 1999).

그러나 반드시 부모이혼이 자녀의 이성교제와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D. Mahl(2001)는 이혼가족 대학생들 단계적으로 면담하는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그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 및 행동양태를 조사한 결과, 이혼가족 대학생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이혼과 그에 수반된 상황 등에 대한 현재의 인식, 이혼한 부모 간의 관계에 대한 반응 양식, 중재 조건 등이 제시되었다. 이혼한 부모 간의 관계성을 일종의 학습 경험으로 생각하는 대학생은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재혼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으며, 나아가 자신의 현재 이성교제 관계에 대한 인식 및 행동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외에도 성별, 성공에 대한 기대감, 애착 유형 및 현재 이성관계의 목적 등은 이들 이혼가족 대학생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 요인으로 밝혀졌다. O. Song, K. Kim, and H. Kwon(2008)은 부모이혼을 겪은 대학생 자녀들은 정서적지지 대상을 통해 지속적인 삶의 안내와 조력을 얻었으며, 상호민음을 주고받으며 소극적이고 위축된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또한 그들 자신의 내적 성취욕구와 다양한 취미활동 및 종교적 활동을 통해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고 한다. M. B. Amy(2012)은 부모이혼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이성과 관련된 생각, 느낌,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부모이혼이 그들의 일반적인 경험에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의사소통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역할 모델(결혼, 부모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영향), 자기인식, 부적응의 느낌, 자녀에 대한 집중 등 이런 주제에 대해서 더 많

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즉, 부모이혼은 많은 생각과 경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하였다.

결국,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이성교제와 결혼, 결혼생활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많은 통제되지 않은 변인들과 자녀가 가지고 있는 내적자원과 사회 환경 등으로 인해 부모의 이혼이라는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의 이혼이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의 정서, 자아, 대인관계, 학업 성취와 학교생활, 이성교제와 결혼에 관하여 부모의 이혼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정리하자면 첫째, 이혼가족의 자녀와 일반가족의 자녀의 집단 간의 두드러진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혼가족 안에서의 개인차이가 큰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둘째, 자녀의 정서, 자아, 대인관계, 학업 성취와 학교생활, 이성교제와 결혼에 미치는 요인은 자아의 건강성, 이혼 전 부모의 갈등정도,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 부모자녀와의 관계, 부모이혼에 대한 자녀의 지각, 가족기능,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주변의 정서적 지지, 경제적인 수준, 가정환경 등의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앞서 제시한 요인이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부모이혼의 영향이 무조건 부정적이지만은 않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부모이혼의 영향력이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원인과 결과라는 단순도식에서 벗어나 연구방법이 향상됨에 따라 여러 가지 매개변수를 이용한 경로분석 결과와 질적연구 방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연구결과가 복잡해지기도 하고 다양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의 삶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는 없다.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자원, 가족자원, 사회자원이 어떠한지에 따라 자녀의 삶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30대-40대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생애사 연구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이에 따라 생애사 연구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생애사 연구방법

지나온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기록한 생애사(life history)는 하나의 서술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담고 있으며, 주관적인 관점을 보여준다(C. Yoo, 1998). 생애사 연구방법의 특성인 서술, 시간성, 주관성을 중심으로 생애사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특성은 서술이다. 생애사 연구는 하나의 총체로서 개인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가장 중요한 측면에 두면서 온전히 이야기로 만들어 나가려 한다. 하지만 생애사 연구는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단순히 기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학적 안목으로 서술하고 해석한다. 생애사 연구에서 개인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는 삶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지 않는다. 이것은 삶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없는 결여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므로 생애사 연구는 새로운 삶을 역동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다(Y. Kim & K. Han, 2010).

두 번째 특성은 시간성이다. 생애사 연구의 주안점은 삶의 경험을 평면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 이야기의 맥락을 이루는 사회구조를 시간성의 차원에서 발견하는 데 있다. 시간은 삶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 하지만 생애사는 단순히 과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삶 자체는 항상 현재에 이루어지지만, 지나온 삶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영향을 끼친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현재 시점에서 지나온 과거를 해석하고 정당화한다. 반대로 과거에 대한 해석은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해 준다. 나아가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과정을 통해 자기의 미래를 전망하게 된다(C. Yoo, 1998).

세 번째 특성은 주관성이다. 생애사는 개인의 경험에 대한 역사로서 개인의 관점, 즉 그의 삶의 상황과 세계에 대한 개인의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애사가 다른 형태의 개인에 관한 기록과 구별되는 점은 바로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진 자기 반성적 이야기를 기초로 구성된다는 것이다(Y. Choi, 1999). 생애사 연구란 현재 시점에서 개인이 이야기하는 과거의 생활경험이 회상을 통한다는 점에서 인생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의미부여, 주관적 해석이 포함된다고 하겠다.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삶과 경험에 대한 역사이지만 그의 이야기가 사적인 것으로 머무르지 않는 것은 생애사에 나타난 주관적인 관점이 생애사를 이야기한 사람이 속하는 집단의 문화, 사회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분석의 중요한 기준은 한 개인의 삶의 맥락을 제시하고 그를 사회나 문화

속에 자리매김하는 작업이 된다(C. Yoo, 1998). 그렇기에 비록 한 사람의 삶을 추적했다 하더라도 그의 이야기에서 한 사회와 문화를 읽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생애사 연구의 강점이자 의의라 할 것이다.

2. 연구참여자 선정기준 및 방법

본 연구참여자는 30-40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기혼여성이다.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이혼을 다룬 연구들의 대상은 대부분 학령기·청소년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부모이혼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결과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이혼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했음을 밝힌다. 연구참여자의 선정 시 앞서 제시한 기준을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이혼을 경험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참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경험한 부모의 이혼은 이성교제, 배우자 선택과 결혼, 결혼생활,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쳐 시기적으로 잘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둘째, 참여자의 연령을 30-40대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자로 정한 이유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원가족의 경험이 생식가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30-40대 기혼여성은 결혼과 출산 등 중요한 과업을 하게 되는 시기이며, 결혼생활과 자녀양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시기이므로 그 영향력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이혼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살펴 볼 수 있으며, 이는 중년기 이후의 삶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참여자의 양육부모가 현재 생존해 있다는 점이다. 부모가 세상에 생존하지 않는다면, 부모를 떠올릴 때 자신의 기억을 미화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양육부모가 생존해서 현재까지도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을 선정기준에 포함시켰다. 넷째, 참여자의 자발성은 본 연구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비롯한 자신의 부모, 현재의 남편과 자녀에 관한 비밀스럽고 은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누기 위해서는 자발성이 없이는 진솔한 심층면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드러내 줄 수 있는 참여자가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8명의 연구참여자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집하게 되었다.

3. 연구참여자의 특성

1)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참여자의 연령은 32-49세에 해당되며 인터뷰 당시의 평균나이는 38.8세이다. 현재 7명은 결혼 상태이며, 1명은 별거 상태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 <Table 1>과 같다.

2)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인 배경

본 연구는 개인의 생애사 연구하며, 본격적인 코호트(cohort)연구는 아니지만 개인은 그 사회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자가 출생했던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사회사²⁾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박영선씨와 최미희씨가 태어났던 1960년대에는 4.19혁명, 5.16 군부쿠데타 등이 발생했던 역사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지휘아래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시기이다. 이슬기씨와 오연수씨가 태어나고 박영선, 최미희, 이슬기씨의 부모가 이혼했던 1970년대는 본격적인 산업화로 인한 경제발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로 인해 남편은 경제활동, 아내는 가사노동으로 이분화되었던 가정생활에서 여성들이 점차 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이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역사학자 J. Seo(2013)은 1961-1979년 시기를 『한 무리의 군인들이 총과 탱크를 앞세우고 수도 서울의 한복판을 점령해버렸다. 자유와 민주주의보다는 근대화와 반공이라는 구호로 무장한 이들의 반란은 경제성장과 함께 길고 추운 ‘겨울공화국’시대를 가지고 왔으며, ‘잘 살아보세’가 한 시대의 구호가 되었던 시절, 최고의 목표는 경제성장이었다.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는 성장의 이면에는 고향을 떠나 달동네 단칸방에 자리 잡은 이들의 땀과 눈물이 흐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지연, 정연진, 한찬숙, 구도연씨가 태어나고, 한찬숙씨의 부모가 이혼을 한 1980년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살만한 사회가 되었지만 급성장한 경제활동의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기도 했으며, 민주화투쟁이 심했던 사회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김지연, 오연수, 정연진씨의 부모가 이혼을 한 1990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현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1997년 IMF사태로 사회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시기이다. 구도연씨의 부모가 이혼을 한 2000년대는 IMF로 인한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 참여자의 사회배경에 대한 설명은 현대사의 권위자인 J. Seo(2013)의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Table 1.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Name	Chan-Sook Han	Mi-Han Choi	Young-Sun Park	Seul-Gi Lee	Ji-Yeon Kim	Yeon-Jin Jung	Do-Yeon Koo	Yeon-Soo Oh
Age (birth year)	33 (1982)	47 (1968)	49 (1966)	44 (1971)	34 (1981)	34 (1981)	32 (1983)	38 (1977)
Growing region	fishing village	Busan & Seoul	Metropolitan area	Metropolitan area	Metropolitan area	Metropolitan area	Metropolitan area	farming village
Job	counselor	food service (part time)	Office worker	housewife	businessman	housewife	specialty instructor	housewife
Academic background	Graduate degree	University graduate	University student	University student	Collage graduate	Collage graduate	University student	Graduate student
Religion	no religion	Roman Catholic	no religion	Christian	Christian	no religion	no religion	no religion
Age at the time of divorce parents	1 (1982)	8 (1976)	8 (1974)	9 (1979)	15 (1996)	17 (1998)	20 (2003)	20 (1997)
The reason for parents' divorce	Difference in personality & domestic violence	Economic difficulties & father's whoring	Father's whoring & Gambling	Difference in personality & whoring	Difference in personality & father's whoring	Difference in personality & Economic difficulties	Difference in personality & Economic difficulties	Domestic violence
main fosterer	father	mother	mother	father	mother	father	mother	×
Whether or not Remarriage	Both Remarriage	Both Remarriage	Father's Remarriage	Both Remarriage	×	×	×	×
Family of procreation (Age of children)	spouse 1son(2)	spouse 2sons (18/14)	1daughter (21)	spouse 1son, 1daughter (14/12)	spouse 1daughter (9)	spouse 1son (3)	spouse 1son (4)	spouse 1son, 1daughter (12/9)
Meeting with spouse	Dating	Dating	Dating	Dating	Dating	Dating	Dating	Dating
Marriage period(year)	3	20	26 (separation 11)	15	9	3	6	12

Table 2. Number of divorces and crude divorce rate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Number of divorces	11,615	16,453	23,662	38,187	45,694	68,279	119,455	128,035	116,858	115,510
crude divorce rate	0.4	0.5	0.6	0.9	1.1	1.5	2.5	2.6	2.3	2.3

정리하면, 이들이 살아온 시기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변화, 그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인 풍요로운 사회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가치관의 혼재 속에서 가족내부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시기라고 볼 수도 있다.

다음은 그 당시에 이혼의 현황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자의 부모이혼 시기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Table 2>와 같이 이 시기에는 비교적 이혼율이 급증한 시기이다. 1975년 이혼건수가 16,453건에서 1985년 38,187건으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조이혼율도

0.5건에서 0.9건으로 상승했다. 또한 1995년 이혼건수가 68,279건에서 2005년 128,035건으로 증가했으며, 조이혼율도 1.5건에서 2.6건으로 이혼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은 우리나라 역사상 이혼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혼의 증가는 한국 사회의 혼인 형태가 전통적인 가족관념, 즉 안정적인 가족을 견지하기보다는 과거보다 불안정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음을 나타낸다(M. Lee & S. Choi, 2011)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이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견해이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이혼에 대해서 얼마나 허용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이며 동시에 연구참여자의 부모와 참여자들이 사회 속에서 경험했던 것을 예측해 주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able 3. Views on divorce

	Must not	Should not	Ought not to	Should	Must	Don't know
1998	19.0	41.3	29.1	7.4	1.2	2.0
2002	16.9	41.5	32.9	5.9	0.7	2.2
2006	19.5	40.4	29.4		6.8	4.0
2010	15.9	40.7	33.4		7.7	4.4
2014	11.3	33.1	39.9		12.0	3.7

본 조사는 사회조사형태로 이혼에 관한 태도를 묻는 질문이며, 1998년부터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이 부모가 이혼을 했던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초반에는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사회조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은 이혼에 대해서 폐쇄적이었던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일수도 있다. 아래 제시한 <Table 3>의 내용을 살펴보면 점차적으로 ‘어떤 이유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점차 줄고,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혹은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이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도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도 ‘어떤 이유라도 해서는 안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해서는 안된다’라는 의견이 전체 의견에 절반정도는 해당된다. 이는 아직까지도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연구참여자들의 부모가 이혼을 한 시기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더욱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혼을 하는 당사자에게도 자녀에게도 어려움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가치관이 이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확하게 수치화 할 수는 없지만, 이혼에 대한 사회가치관은 그들의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4년 3월-5월에 이루어졌다. 인터뷰 횟수는 대부분 2회로 진행³⁾하였으며, 1회 진행 소요시간은 2-4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회당 평균적으로 2시간 30분 정도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한 1차 면접에서는 라포를 형성한 후, “본인이 기억하는 최초의 기

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라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기억에 존재하고 있는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현재 모습까지를 순차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2차 면접에서는 1차 면접내용을 확인한 뒤 참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연구자가 미리 알고자 했던 몇 가지 필요한 질문들을 통해서 1차 면접 때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5.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Wolcott(Y. Cho, 1999)가 제시한 분석방법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Wolcott는 질적연구에서의 자료분석과정을 ‘기술(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의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한다. 앞서 제시한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터뷰 전체 내용을 전사하고 전사본을 수차례 정독한 후, 참여자의 전 생애를 간략하게 요약하였으며, 생애 과정에서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였다. 그 다음으로 참여자의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I(결혼 이전), 성인기 II(결혼 이후)로 구분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맥 속에서 경험되고 기억되어지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조화하였다. 이것은 기술단계로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보게 하는 일’이다. 다음은 분석단계로 ‘연구자가 안 것을 독자가 알게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개별 사례 분석을 벗어나 각 인터뷰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재구성하였다. 부모의 이혼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삶의 전이과정 속에 들어난 삶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정서, 자아개념의 형성과 발달, 대인관계, 학업성취, 이성관계, 배우자 선택 및 결혼, 결혼생활, 자녀양육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삶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해석단계로 참여자의 추상적인 기술과 기술·분석을 바탕으로 부모이혼경험의 지속성과 부모이혼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새로 발견한 내용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작업을 하였다. 하지만

3) 정연진씨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터뷰를 1회 진행 함.

기술·분석·해석과정은 선형적인 형태의 분석과정이 아니라 나선형적인 분석과정이다. 수차례 전사본을 정독하면서 기술·분석·해석과정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였다.

6.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를 윤리적으로 고려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의 개인적인 정보나 면접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명시한 연구 동의서를 작성하여 연구자와 참여자와 상호 동의를 공식화하였다. 본 연구가 학위논문임을 명확히 밝히고 구술 면접 시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한 허락 여부, 녹취 자료의 안정성 및 폐기에 관한 내용 등 비밀보장의 권리를 명확히 하였다. 둘째,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섭외과정부터 참여자의 자발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면접장소를 선택하거나 약속날짜와 시간을 정할 때도 참여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참여자가 연구에 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질적연구에서는 상호호혜성이 중요하다는 점으로 참여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으며,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상황을 참여자들에게 알림으로써 그들이 수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본 연구는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진행하는 것임을 인지하도록 하였다.

IV. 참여자 이야기

1. 한찬숙씨 이야기

한찬숙씨는 1982년생 33세이며, 2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생후 7개월경 부모가 이혼하고, 6세 때 주양육자인 아버지의 재혼으로 새어머니가 생겼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복 남동생의 태어났고, 중학교 때는 심한 빈혈로 병원에 자주 입원을 했다. 고등학교 때는 시내로 올라와서 하숙생활을 했고,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공부했다.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꾸준히 개인 상담을 받고 상담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대학원 졸업 후 상담센터에 취업을 하여 27세 팀장, 29세 최연소 나이로 상담센터의장이 되었다. 29세에 남편을 알게 되어 31세에 결혼을 하고, 현재는 아들을 양육하면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2. 최미희씨 이야기

최미희씨는 1968년생 47세이며, 1남 1녀의 중 장녀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미혼모인 상태로 최미희씨를 낳아 기르게 된다. 친조부모의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하다가 최미희씨가 태어난 지 3년 뒤에 친조부모의 승낙으로 부모님이 결혼을 하고 친가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재혼을 하게 된다. 학창시절에는 평범하게 보내고 대학에 입학하여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다. 사회생활의 경험 없이 8년 연애 후, 28세에 결혼을 했다. 40세에 남편과의 이혼 위기를 경험하고, 친정어머니가 쓰러지는 등의 큰 사건 후 종교생활을 시작했다. 현재는 대학에 편입을 해서 학업을 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정주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박영선씨 이야기

박영선씨는 1966년생 49세이며,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했다. 학창시절은 특별한 사건 없이 보내고, 19세에 남편을 만나 22세에 결혼을 하고 29세에 딸을 출산했다. 결혼기간 내내 가정경제에 대해 관심 없는 남편을 대신해서 생계를 책임졌다. 결국에는 38세,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되던 해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다. 그 뒤로 딸과 둘이 살며 직장생활을 하다가, 소원을 품고 45세에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 있다.

4. 이슬기씨 이야기

이슬기씨는 1971년생 44세이며,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가 이혼을 했고, 그 뒤 아버지와 함께 11세에 서울로 이사를 했다. 이 무렵 부모가 각각 재혼을 했다. 17세 야간 상업고등학교를 진학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백화점 매장 직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 24세에 직장동료였던 남편을 만나서 29세에 결혼을 하게 된다. 10년 동안 가정주부로서 살다가 44세에 대학에 입학해서 제 2의 삶을 살고 있다.

5. 김지연씨 이야기

김지연씨는 1981년생 34세이며, 1남 1녀의 둘째로 태어났다. 김지연씨의 부모는 중학교 1학년 때 별거하고, 고등학교 때 이혼을 했다. 부모이혼 후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살았으며, 김지연씨의 결혼을 계기로 현재 부모님은 왕래를 하고 계신다. 김지연씨는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에서 아동미술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 작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근무했다.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고, 아이가 생겨서 출산 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결혼 후에 아이를 키우면서 아동복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6. 정연진씨 이야기

정연진씨는 1981년생 34세이며, 2녀의 장녀이다. 정연진씨는 중학교 때까지는 평범하게 살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아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고등학교 1학년 되던 해 집에 채권자들이 찾아왔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가출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모는 서류상 이혼을 하게 된다. 집안의 수입이 줄게 되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필요한 돈을 벌어서 썼다. 대학 졸업 후 23세에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그곳에서 26세에 남편을 만나 31세에 결혼을 하고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다.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직장을 그만 두고 현재는 아픈 아이를 돌보면서 전업주부로 지낸다.

7. 구도연씨 이야기

구도연씨는 1983년생 32세이며, 1남 2녀 중 둘째이자 장녀이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평범하게 살았다. 20세에 대학 입학했고, 그 무렵 부모가 이혼을 했다. 부모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은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23세부터 학습지 선생님이로 29세까지 일을 하게 된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26세에 결혼을 하고 29세에 출산을 했다. 출산 후 자녀양육으로 인해 일을 잠깐 쉬다가 30세부터 유치원에서 영어특기교육 선생님이로 일을 하고 있다. 현재는 대학에 편입하여 다시 공부를 하면서 학업, 직업, 가사일과 양육까지 도맡아 하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내고 있다.

8. 오연수씨 이야기

오연수씨는 1977년생 38세이며, 1남 4녀 중 4째 딸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지방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다른 지역으로 야반도주를 했다. 고등학교 3학

년 때 어머니가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하신 뒤 더 이상 폭력적인 아버지와 결혼생활을 유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어머니는 가출을 하셨고 2년 뒤 이혼이 된 상태이다. 그 뒤 21세에 여동생과 함께 집을 나온 후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23세에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났고 26세에 결혼을 하고 첫 자녀를 출산했다. 계속 전업주부로서 생활하다가 2009년 개인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 공부를 시작했고, 2011년 대학원에 진학해서 현재는 전업주부와 대학원생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

V. 연구결과

1. 전이과정에서의 삶의 경험

부모이혼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영위해가고 있었다. 그들이 경험해 온 삶의 과정을 따라가며,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을 청소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이과정에서의 중요한 생애사건과 역할과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정서를 이해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정서는 참여자들의 삶의 과정 속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들의 정서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참여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정서경험과 삶의 전이과정에 따라 자아개념 형성 및 발달, 대인관계, 학업 성취, 이성교제, 배우자 선택과 결혼, 결혼생활,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이혼 경험의 지속성 및 의미를 분석했다.

1) 정서경험

참여자들의 과거와 현재 삶의 모습은 차이가 있지만 삶에 전반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통된 정서는 두려움, 분노, 애정결핍이었다.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정서는 두려움이다. 부모에 대한 두려움, 자기 존재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의 폭행과 폭언을 경험하였거나, 부모의 부부싸움을 자주 목격한 경우 부모에 대한 두려움을 강력하게 경험했다. 이는 자신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점과 지금까지 지내온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까지 더해져 부모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깊어지고 만성적이 되었다. 두려움이라 함

은 사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서이며 경험이기도 하다. 하지만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의 성격은 다르다. 자신이 잘못했다거나 실수를 해서 부모에게 혼날까봐 느끼는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약자의 입장에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 느낄 수 밖에 없었던 두려움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기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즉, 자신이 사는 것,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고백했다. 그 이유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 부모에게 조차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공포라는 것이다. 부모가 자신의 불안정한 부부 관계에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관심을 덜 기울이게 되고, 이런 부모의 행동으로 인해 자녀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것이다. 결국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안정감이 없었으니 자신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이다. 사실 어린 시절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은 측량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크며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부모의 영향이 부정적이고 두려운 것이라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 자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비단 부모가 이혼을 했다거나 혹은 재혼을 했다는 사건의 결론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기보다는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부부갈등 때문에 불안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것과 부모의 수용적이지 못한 양육 태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있다. 특히 누군가를 만나고, 그와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는 길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부모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참여자들은 부모를 통해서 결혼생활의 좋지 못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며 자라왔고, 결국에 부모의 이혼이라는 부부관계 해체로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부모의 지속적인 부부갈등에 의해서 생긴 것 일 수도 있지만, 결국 부모이혼을 통한 가족해체라는 결과로 인해 자신의 미래 가족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짙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녀로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많이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도 부모처럼 자녀에게 고통을 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결국 참여자들이 겪는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보다 보다 구체적이었고, 부정

적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삶 전반에 작용하고 있었다.

늘 불안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 대학교 때, 결혼 전까지 도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많고 그렇지만 언젠가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고 더 힘들어 질수도 있다는 마음도 있고.(구도연)

부모님이 싸우면 내가 괴롭고 힘들고...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큰일을 당하면 우리엄마가 술을 안마실까?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내가 심하게 아프면 우리엄마가 술을 안마실까'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게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거죠.(김지연)

(새어머니가) 늘 나를 밀어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를 받아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나를 받아주나 안받아주나... 이것만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결혼 전에 만났던 이성관계와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한찬숙)

두려웠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이슬기)

제가 어떤 불안이 있었냐면 내가 결혼하고 나서 혹시 싸우는 패턴대로 가려고 할까봐 겁이 많이 났어요. ... (중략) ... 그게 어떤 거냐면 행복이란 단어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애를 낳으면 사랑을 못 즐까봐 불안했어요. 결혼해서 싸우면 어떡하나... 불안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하고 관계에서 새엄마처럼 하려고 했더라고요. 그걸 느끼고 남편에게 얘기 했어요. 그만 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때 남편이 많이 고생했죠. 엄마 아빠의 모습을 내가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 앞에서 안 그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어느 날 내가 화가 나니까 남편한테 그러더라고요.(한찬숙)

초기에는 (자녀에게) 해주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절망감으로 '부모가 되면 안됐어. 애를 낳지 말

있어야 돼'라는 생각이 정말 강했죠. 그런데 지금은 완벽한 부모라는 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자고 생각이 바뀌려고 노력하지만, 지금도 '애들한테 상처주지 말아야 한다, 잘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 같아요.(오연수)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정서는 분노이다.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제대로 된 양육을 받거나 사랑을 충분히 받은 경험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부모가 갈등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부모는 그들의 관계에 몰입되어 자녀에게 많은 관심을 쏟지 못했거나,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높아서 자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되어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 이는 부모이혼 전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부모이혼 후 자신을 양육해주는 주양육자에 대한 분노도 상당히 많이 발견될 수 있었다. 주양육자에 대한 기대로 인한 실망감이 더 큰 분노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녀를 양육해 본 경험이 있기에 한 사람이 성장하기까지는 부모의 노력과 희생 없이는 자녀가 성장 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된 이후에도 자신이 돌봄을 받지 못했다고 분노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일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내고 있는 편파적인 기억의 인출과정 때문일 수도 있다. 이는 부모와 자신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기억들이 자신의 뇌리 속에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들로 인해 부모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분노는 성장과정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결혼 후 남편과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살면서 '나는 정말 최악의 경우에 걸렸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 엄마는 관심도 없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엄마에게 그랬어요. '아들 낳으면 됐지. 왜 나를 낳았어'라고 계속 얘기 했는데...(오연수)

20살 초반 때까지는 원망이 있었는데 '왜 우리 엄마는 평범하지 못했을까?'라는 게 제일 그랬죠. 학교 갔다 오면 간식 주는 엄마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는 엄마. 그런데 우리 엄마는 집에 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주부로서 우리를 양육해주지 못했을까?...'(정연진)

제가 서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애들도 소중하지만 엄마 인생도 소중하다고... 이 얘기를 듣는데 지금도 많은 상처가 되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청소년기에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항상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엄마라고 부르기 싫을 정도로 싫었어요.(구도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분노 밖에 없는 것 같아요.(최미희)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정서는 애정결핍이다. 많은 참여자들은 본인이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애정이 결핍되어 있다고 고백을 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맺을 때 두려움이 먼저 앞서고,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하였다. 또한 이성과의 관계를 맺을 때, 사랑을 받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사랑인지 모르고, 사랑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하였다. 이런 경험은 자녀 양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애정결핍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은 이들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핵심 정서이다.

부모님에 대한 애정결핍이 있어서...저의 약점인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취약점이요. 다른 건 괜찮은데 사람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불편하거나 그러면 많이 상처받고 그러죠.(박영선)

'엄마한테 늘 거절당하는 느낌 때문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봐 할 말을 못 했구나'라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엄마가 내 생활에 영향을 줬던 거죠. 나보다 양육을 잘 받은 사람에 대한 질투가 있었어요.(한찬숙)

사랑을 받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배려는 해도 사랑을 하는 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녀들한테도 미련은 없어요. 많이 관심을 안두는 것도 몰라서요. 사랑이 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해주기는 하는데 해주면 서도 그런 감정이 안 든다는 거죠 ... (중략) ... 제가 사랑을 받고 못 자랐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애정표현을 하고 그러면 받아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 하는 거죠. 제가 자라온 환경이 그러니까... 그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슬기)

이와 같은 정서는 참여자들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가 참여자들의 삶 속에 부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하지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으로도 작용한다. 앞으로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아개념의 형성과 발달

참여자들은 청소년시절 종종 혼란을 경험한다. 하지만 혼란을 경험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처럼 비행으로 연결되지만은 않는다. 특히 참여자들은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질풍노도'의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에 성인기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감정의 억눌림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며, 착한 딸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순종적인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S. Jung, 2008; H. Kim, 2004; N. Kim, 2006; H. Park & M. Yon, 2004). 이는 많은 부분 성장과정 속에서 부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비롯된 눈에 보이지 않는 억압이 자아개념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개념의 형성과 발달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이 차이가 있었다. 참여자 가운데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는 부모의 사랑 덕분에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다고 고백했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지금도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아빠가 나를 인정해주고 귀하게 생각해줬기 때문에 나라는 자아가 형성되고 자신감 있고 야무지고.. 아빠가 나를 잘 대해줘서 어릴 때 잘 형성이 돼서 내가 닦쳐오는 힘든 일을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김지연)

엄마는 정말 밝아요. 지금도요. 그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엄마의 삶이 힘들었을 텐데 엄마는 한 번도 힘든 거를 내색한 적이 제 기억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미희)

반면에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들은 부모의 돌봄이 미치지 못해 깔끔하지 못한 겉모습 때문에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면서 자아존중감이 낮아졌다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친부모, 계부모 모두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 성격형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변화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고백한 경우도 있었다.

중학교 때는 외모도 신경 많이 쓰고 그럴 때인데 소한테 한번 갔다 오면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 학교를 가는데 소에 이리저리 치이고 그리고 냄새가 씻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동네라서 아는 애들이 있으면 정말 죽고 싶고 고개도 못 들고 이대로 어디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저 길을 지나가야 된다는 게 정말 끔찍했어요. 그걸 몇 년 했잖아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제 친구네 오빠가 저 거지라고 저랑 놀지 말라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 내 동생이랑 놀지 말아라 년 거지다라고 반복적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 진거죠. (오연수)

제가 자라온 환경이 그러니까... 그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성격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적극적인 때는 그렇지만 적극적인 상황에 가서는 소극적이 되고 움츠러들더라고요. 성격을 고치는 학원을 다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슬기)

부모의 충분한 사랑과 관심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그런 사랑과 관심이 없거나 적다고 인식할 때는 자아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이것은 부모가 이혼했다는 객관적 사실 이전에 부모가 자신들의 갈등과 상황에 몰입된 나머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의 애착관계형성은 자녀의 자아개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 대인관계

청소년시절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많은 참여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물론 부모이혼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하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학생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따돌림을 경험한 참여자들의 고백도 있었으며, 그것을 제외하고도 많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목마름으로 대인관계에 매달리기도 하고,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맺지 못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나중에 제가 상담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이 고통(왕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게 '나에게는 아픈 부위가 됐구나... 상처로 남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친구들이 뭔가를 할 때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슬픔과 아픔이 있더라고요.(오연수)

그때 제가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는데 전화비 몇 십 만원씩 나오게 하고... 제 생각인데 그제 관계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한찬숙)

부모이혼이 참여자의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밝히는 개방성과 숨기는 폐쇄성에 따라 이후의 삶의 모습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가 언급한 내용 중 '부모의 이혼은 자기 자신이 자라온 과정이며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과 '정말 힘든 문제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발 짝 떨어져 보았다'라는 부분이다. 이는 '부모의 일은 부모의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객관화하는 능력과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부모의 이혼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대인관계의 위축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반면 이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다루는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부모의 이혼을 철저히 숨기면서 살아왔던 참여자는 부모의 이혼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함에 따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확신했다는 것이다. 물론 외부로 자신의 상황을 노출하지 않은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참여자의 경우는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은 것

자체가 자신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음으로, 대인관계에서의 폐쇄성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말 힘든 문제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발 짝 떨어져서 본 것 같아요. 그게 내 살 길이었고... 알고 다 생각해서 한건 아니지만, 그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한 것 같아요.(김지연)

어린 시절의 기억은 없지만 느낌은 있어요. 수치심이에요. 부끄러움에서요. 우리가정이 깨져있는 것에 대해서요. 초등학교 때 책에서 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아무도 모르지만 가슴이 떨리고 그랬어요. 그게 수치심, 창피함, 분노였던 것 같아요. 주변사람들한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지금 아버지가 새아버지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최미희)

대인관계는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전생애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참여자들의 대인관계를 단순한 도식으로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대인관계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자녀를 배려하지 않았던 부모의 양육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었던 따돌림, 생애초기 안정적인 애착관계형성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발생한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 또한 가정환경의 위축으로 초래된 폐쇄적인 대인관계 등은 자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학업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학업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참여자들이 학업에 충실하지 못했던 이유는, 첫째로 불안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다. 항상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자신의 생활에 충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부모에 대한 반항의 의미로 학업에 충실하지 않거나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참여자들은 '내가 학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혹은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원인을 부모에게 돌렸고, 부모 탓할 수 있는 여지를 부모가 직접 제공했다고 생각했다. 이렇듯 자녀의 학습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인식한 점에서 부모의 갈등 및 이혼은 자녀의 학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공부를 중학교까지 좀 하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저는 가정 타을 한 거 같아요.(최미희)

제일 큰 일 중에 항상 혼나고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기 싫었어요. 학교 다니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저한테 도움 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이슬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제일 원망스러웠던 것은 누구하나 꿈을 심어주거나 따뜻한 가정이 아닌 엄마는 일 때문에 바쁘고 아빠도 엄마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지내느니라 동생과 저만 힘들었던 것 같아요.(구도연)

공부에 대한 그런 것이 열망이 많죠. 많이 배웠으면 똑똑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배움이 없다 보니까... 나만의 약점? 인거죠. 공부도 좋은 환경에서 하고 그랬으면 다른 쪽으로 성공했을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난다면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박영선)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생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삶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학교를 들어가는 것, 진로 같은 것. 엄마가 초등학교 때는 엄하게 대해서 시험문제 틀리면 혼나고 그랬는데 아빠도 계속 그 얘기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안정적인 집안 분위기의 지원이 있었다면 그리고 엄한 엄마가 잡아줬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했죠.(정연진)

5) 이성관계

참여자들은 성장하면서 이성교제를 경험하고, 그 과정 속에서 부모의 영향을 받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성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이성과의 만남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또는 부모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이성 친구에게서 대신 받고자 하여 건강한 남녀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참여자,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서 남성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던 참여자, 그리고 부모이혼이 자신의 연애와 결혼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참여자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 자체가 무서웠어요. 몸을 사리고 내 자신을 사랑해서 혹시라도

나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하기도 했어요.(김지연)

23살 때 남편을 만났어요. 그 전에도 제가 소개팅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계속 이성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못 만나요. 스킨십이 있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강하게 거부했어요. 무서웠어요. 나한테 어떻게 할 것 같고...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남자에 대한 관심이 뭔가 따뜻함을 갈구 했던 것 같아요. 나를 보호해주고 소설이나 TV에서 백마 탄 남자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는 그런 걸 바라던 거 같은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오연수)

고등학교 때 사람한테 많이 의지했었고 남자친구를 사귄 때 저 사람이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났다가 상처를 받고 그랬어요. ...(중략)... 저는 남편하고 만나기 직전에 결혼을 할까말까라는 생각했었던... 과거 연애를 정리하면 내가 치유하고 싶어서 만났던 기대감이 많아서 상처가 많은 관계, 내가 챙기지 못해서 상처받았던 관계, 너무 잘해줘서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게 저의 연애 패턴인데 남편 만나기 직전의 연애에서는 사랑을 하려고 만나는 건지 싸우려고 만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한찬숙)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나서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신 것 같아요. 헤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물어봤는데 저와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다고 7년을 만나는 동안 계속 설득했지만 안돼서 본인도 지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헤어졌어요. 저는 마음에 상처가 된 게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반대를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상처가 많이 됐죠.(구도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왜 부모이혼이 자신의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근거이다. 이것은 바로 인간은 사회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이 이런 고민을 하던 때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이다. 그 당시에는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다. 이는 '정상가족 신화'를 만들었고, 초혼양 부모가족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족은 비정상가족이라는 신념을 형성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이혼을 했다는 것은 비정상가족 안에서 자녀가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자녀는 문제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가치관이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어린 나이에 경험하는 이성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는 이성관계에서의 위축 및 어려움을 경험하도록 만들었다.

6) 배우자 선택과 결혼

연구참여자들 모두 결혼을 선택해서 기혼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녀들이 왜 결혼을 선택했는지, 그 과정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결혼관, 결혼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우선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결혼관이 형성되었다고 고백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부모의 결혼생활을 지켜보면서 결혼은 준비되어진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서로가 책임지지 못한 부모를 보면서 한번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이라면 평생 함께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한 참여자도 있었다. 반면에 부모의 이혼과 재혼의 영향으로 결혼 자체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결혼을 거부했던 참여자도 있었다.

처음부터 했어요.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감정이 라면 평생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사회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엄마랑 친아버지가 좋아서 결혼해서 저희를 낳았는데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것을 제가 용납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최미희)

저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보고 자랐는데 결혼생활을 해... '결혼 생활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자식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이 들더라고요.(이슬기)

결혼관과 관계없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다 결혼을 한 상태이다. 참여자 가운데는 결혼을 해서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생각한 참여자, 결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참여자, 막연하게 결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한 참여자,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깊게 생

각하지 않았던 참여자 등 본인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매우 다양했다. 이들이 결혼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부모처럼 책임감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헌신적이었던 남편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결혼을 선택하기도 하고, 정당하게 원가족에서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결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을 하기도 했다.

제가 이 사람을 거의 5년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라는 생각도 안 들었죠. 그런데 집에서 제 나이를 얘기 하면서 결혼 하라고 했는데 저는 안한다고 했죠. 부모님은 저 남자는 나를 위해서 몇 년을 바쳤는데 내가 결혼 안하게 되면 남편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책임지라고...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약한 거 같긴 한데 5년이라는 세월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28살이면 적은 나이도 아니고. 책임이라는 말에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좋다고 만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좋다고 만나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감정도 아니니까요. 제가 마음을 열었던 때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한 번도 없거든요.(이슬기)

빨리 탈피하고 싶었어요. 집안에서 내 편이 되 주는 사람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강했던 거죠. 결혼을 할 때도 빨리 독립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구박하고 밥도 안주고 그런 게 너무 힘들었고 도피성으로 했는데 제대로 된 가정이었다면 그렇게 서둘러서 결혼하지도 않고 남자를 보는 시야도 넓었겠죠.(박영선)

빨리 결혼해서 엄마한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강했죠. 그래서 저희 남편과 싸울 때 엄마가 원망스러운 게 사실 엄마한테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빨리 결혼했는데 26살이면 어릴 때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건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결혼 한 것 같아요.(구도연)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지금의 남편을 배우자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확신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했던 참여자, 본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했던 참여자, 비슷

한 가정환경이라서 편안함을 느꼈던 참여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했던 참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랜시간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된 후에 남편을 만났을 때, '결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에게서는 안정감, 그리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거. 공유하고 공통점도 있고 미래의 모습들이 맞았어요.(한찬숙)

남자를 몰랐던 거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잘 챙겨줬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생각했죠. 가정사가 없으니까 기준을 둘 곳이 없었던 거죠.(박영선)

남편도 같은 환경이었어요. 이혼가족이고 남편은 삼남매인데 누나가 위로 두 명이 있는데 남편이 3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 (중략)... 환경이 제가 이혼가족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러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정연진)

이 사람은(남편) '평생 절대 바람 피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만약에 인구가 100명이 있다고 하면 100명 중에 1명은 바람을 안 피겠지 그 한 명이 이 사람이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나만 바라보겠구나... 그래서 내가 배우자 선택하는데 있어서 부모님의 영향이 컸어요. 100%라고 볼 수도 있죠.(김지연)

7) 결혼생활

참여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 결혼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방대했으며, 다양했다. 가장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한 참여자의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관계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 고통을 경험한 이후에 결혼을 하였고, 결혼에 대해서 많은 부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준비를 한 상태였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큰 덩어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우울했죠...혼자 있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이 있으니까 중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남편이 없으면 안정감이 없으니까 더

외로웠을 거 같고요. 남편이 있어도 이런 이야기도 못하는 남편이었으면 더 힘들었겠죠. 남편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일기를 쓰 듯이요. 메일을 쓰면서 남편하고 유대감이 많이 형성된 거 같아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고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메일을 주고받고 그 후에 만나니까 주변 다른 거는 많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한찬숙)

그 외 다른 참여자들은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그 이유는 남편을 부모라고 여기며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남편을 통해서 받길 원했고, 남편이라면 그렇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비합리적인 신념이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하지만 참여자들이 지금까지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부모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면서 치열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남편에게는 모든 걸 얘기 할 수 있었던 거죠. ... (중략)...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남편을 정말 믿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남자 같으면 100% 거절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믿고 있었나봐요. 부모한테 느끼는 건데 저는 못해서... 남편은 다 믿었고,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나봐요. 남편에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했구나.(최미희)

이혼한 자녀들은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은 할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졌죠. 남편이 랑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위기들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을 까'라는 생각들 하게 되고 애가 아프다 보니까 아픈 애를 두고 위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한번 씩 저도 육하고 하거나 그러면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경험해 봐서 알다 보니까 내가 맞춰주면 남편도 따라올 것이고 하는 그런 거죠.(정연진)

8) 자녀양육

참여자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은 혼란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으로는 자신이 부모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자

신의 부모와 계부모를 통해 좋은 모델로서 부모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경험하게 되면서 좋은 모델링의 부재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더 좋은 부모, 괜찮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남편과 대립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괜찮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인 동시에 자신과 자녀를 동일시하는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저는 (아이가) 7개월 때쯤에 왔다갔다하면서 불안했었어요. 그때는 저도 불안했었어요. '나도 엄마처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한찬숙)

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이를 내 부모 밑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키우고 싶고, 만약에 제가 이혼하면 저는 절대로 재혼하지 않을 거예요. 내 자녀한테 어떤 면으로든 상처주지 않으면서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지는 게 바람직한 부모라고 생각해요. 많은 것을 해주지 않아도 옆에 있어 주는 거... 그리고 어떤 자녀 건 간에 부모님이 같이 살고 지내는 게 좋은 거 같아요.(김지연)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의 기질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주변에서 학부모를 위한 교육이 있으면 다녔었고.(이슬기)

남편이 저희 애들 예뻐하는 모습에서 제가 어린 아이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저런 아빠가 없었어'하면서 '불쌍한 애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운 적이 있는데..(최미희)

2. 지속성과 의미

1) 부모이혼 경험의 지속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참여자 모두 부모의 이혼은 자신의 삶에 평생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었다. 특히 배우자 선택, 결혼생활, 자녀양육을 통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성인기에 부모이혼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직접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이혼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부모이혼이 자신의 삶에 있어 큰 영향력을 미친 사건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특히 성인이 된 이후, 결혼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의 이혼은 나의 인생 거의 다에 영향을 미쳤어요. 가치관, 생각을 세우는 것도 부모의 영향이 미친 것 같고요. 남녀관계에 대해서도요. 남편을 대하는 방식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최미희)

시작부터 잘 안됐으니까...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죠. 반은 그렇고 반은 제 성격의 문제 일수도 있고요. '딸은 엄마를 닮는다고 하는데 나도 좀 닮은 건가'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할 번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됐죠... 저는 엄마랑 다르다고는 생각해요. 엄마처럼 행동하지는 않지만 엄마가 그런 걸로 이혼했기 때문에 저도 이해 못할 수도 있잖아요.(박영선)

부모님의 이혼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모든 것에 영향을 주니까 저의 환경이나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고 잃은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이슬기)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부모의 이혼이라는 사건을 자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이 부모의 이혼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따라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이혼을 단순하게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며, 이혼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때로는 자신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사건이라고 인식한 경우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었다. 하지만 부모의 이혼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며, 자신의 삶의 위기를 초래하는 만든 원인이며,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제공해 주었다고 인식한 경우는 부모의 이혼은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부모이혼에 대한 자녀의 인식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이 인식에 따라 부모이혼의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난다.

2) 부모이혼의 의미

참여자에게 부모이혼이 주는 의미는 절대적이었다. 부모이혼의 의미를 그들의 삶의 맥락에 근거하여 살펴볼 때, 두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이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의지, 성취하고 싶은 욕구, 자신의 발전을 위한 투자를 통해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서 이루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제 마음에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많았어요.(한찬숙)

내가 느낀 거는 부모님도 남편도 아니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강해요. 나를 지키려 하는 것이요. 저는 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의 에너지의 원천인 것 같아요.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내 인생에 대해서 '잘 살았구나 잘 컸구나'라는 것이 내가 판단할 때 강한 거고, 그런 상처가 있기에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요.(박영선)

너무 안달복달하지 않은 엄마. 애들이 엄마를 생각하면 편안하고 쉬고 싶을 때 엄마한테 찾아오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저는 저 대로 애들만 바라보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공부 잘해서 계속 저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면서 살고 싶어요.(오연수)

참여자들은 부모의 이혼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을 형성했다. 이는 부모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었다기보다는 부모의 이혼 전후로 힘들었던 원가족의 삶의 경험이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이라는 결과를 낳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개인차는 있지만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 어렵고 적박할수록 이런 열망에 대한 간절함은 한층 더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나는 정말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또는 '저의 가정은 불안정했기 때문에 나는 늘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등의 표현을 통해 '정상가족'에 대한 열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결혼을 해서 누구보다 잘 살고 싶어 했다. 참여자들 중에는 부모와 같은 실수를 경험하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판

단을 하고 교육이나 상담 등 외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부모처럼 이혼하지 않겠다.', '내가 겪은 고통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와 같은 신념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들은 부모이혼의 의미를 자녀로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었다. 자신이 자녀였을 때, 부모이혼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나의 자녀에게는 같은 아픔을 주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으로 '정상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참여자에게 부모이혼이 주는 의미는 절대적이다. 특히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이혼이 주는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으로 보인다. 기혼여성인 이 시점에서 부모의 이혼이 참여자들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부모이혼은 때로는 삶 속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만든 원인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의 삶을 더욱 책임감 있게 이끌고 나아가는 원동력을 만들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이혼이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혹은 부정적인 작용을 했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듯하다. 다만, 부모이혼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이혼을 자신의 삶이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삶에 더 나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VI. 결론 및 논의

1.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부모이혼을 경험한 30-40대 기혼여성의 정서,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전이과정에서의 삶의 경험, 부모이혼 경험의 지속성, 부모이혼의 의미로 구분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첫째, 참여자들의 정서는 두려움, 분노, 애정결핍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서는 참여자들의 삶의 전반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연구결과를 통하여 참여자들의 청소년기 삶의 모습을 자아개념 형성과 발달, 대인관계, 학업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의 애착관계형성은 청소년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논의는 선행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P. R. Amato & B. Keith, 1991; S. Cho, 2010; H. Hwang, H. Cheon, & K. Ock 2010; S. Ju, 2007). 자아개념 형성과 발달은 부모의 이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살펴 볼 수 있듯이,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이혼 전후에 양육자 중 한명이라도 지지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면 긍정적인 자아형성과 발달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이혼과 자아형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과 발달에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 과정에서 환경의 변화가 부모자녀관계의 안정적인 애착관계형성에 장애가 되었고, 이는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과 발달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의 대인관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따돌림을 경험하기도 하고, 대인관계를 맺을 때 자신 없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인생초기 부모와의 신뢰감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대인관계로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는 학업을 통한 자신의 성장일 것이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대부분이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부모에 대한 반항의 의미로 학업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고백하였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청소년기의 영향에 대해서 결론 내리자면, 부모이혼을 경험한 청소년기 자녀가 자아개념 형성과 발달, 대인관계, 학업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한지, 이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청소년기 삶의 모습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리하면 부모이혼이라는 사건의 부정적인 작용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은 부모와 자녀간의 안정적인 애착형성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셋째, 연구결과를 통하여 참여자의 성인기 삶의 모습을 이성관계, 배우자 선택과 결혼, 결혼생활, 자녀양육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참여자들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대부분 참여자는 이성교제를 통해 상대방과의 신뢰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이유가 부모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이성교제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정상적인 이성관계가 아닌, 이성교제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것들을 상대방에게 받으려고 함으로써 어려운 이성관계를 경험했다. 참여자들이 결혼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원가족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마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 이는 상대방을 사랑해서 함께 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혹은 사회적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당위성 때문에 결혼을 선택했다기보다는 가족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참여자들의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면, 참여자들의 과반 이상은 배우자 선택에 대한 기준 없이 배우자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본인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서, 나와 비슷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편안함을 느껴서 배우자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와의 만남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원가족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새로운 환경을 원하는 마음이 더욱 큰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의 결혼생활 초기는 배우자와의 갈등, 시댁과의 갈등으로 순탄치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부부갈등 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서 과거 부모에 대한 두려움, 분노 등 부정적인 정서가 '튀어나온다'는 점이다. '튀어나온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연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결혼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부모이혼의 어려움을 본인이 잘 알기에 자신의 부모처럼 되지 않기 위해 인간 힘을 쏟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녀양육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자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부모의 좋지 못한 양육태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에게 표현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한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 본 경험이 없어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두려웠다고 하였다. 그래서 부모교육도 받고 상담도 받으며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부모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넷째, 부모이혼 경험이 자신의 삶에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한 부모이혼 경험의 지속성에 대한 결론이다. 참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부모이혼은 자신의 삶에 지금까지도 미쳐왔고,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부모이혼이 자녀의 성장기간 동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성교제, 배우자 선택, 결혼생활, 자녀양육 등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섯째, 부모이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이다. 참여자들은 부모이혼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두 가지 의미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과 '정상가족'에 대한 열망이었다.

2. 논의

첫째,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부모의 양육태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잘 돌봐주고 애정을 주면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이혼으로 인해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그들을 큰 어려움이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대로 부모이혼보다 이혼 후 양육자의 차별적인 양육태도와 자녀에 대한 무심함이 자녀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안전한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한다. '부모이혼은 나 때문이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버린 거야'라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수정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부모이혼을 받아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 교육과 상담이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부모와 사회는 이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자녀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삶을 연구하지만 이를 통해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주양육자인 아버지가 재혼을 한 경우는 새어머니가 생기게 된다. 사회의 성역할규범은 재혼 가족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새어머니에게 계자녀의 주양육자의 역할을 부여한다. 이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새어머니는 자녀에게 양육부재를 초래하였고, 이는 자녀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혼과 재혼은 극히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그들이 역할을 구분 짓고,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회의 통념이 많이 작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아버지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계부모는 이리하다'라는 식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편견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옳다'라는 인식으로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통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도 하더라도 우리는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개인의 삶을 통해 사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부분은 바로 대중매체이다. 대중매체는 사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다. 실로 대중매체의 힘은 대단하다. 참여자의 경우 '자신의 부모가 이혼한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자신의 가정은 비정상적이다'라는 사고방식을 만들어 준 것이 바로 대중

매체의 영향이었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접하게 되는 많은 것들이 한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많은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혼이라는 개인적인 문제를 사회가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가? 라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숙려제도를 통해서 이혼에 대해서 더욱 숙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교육에 관해서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혼숙려제도 실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 하여금 이혼에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겠다. 더 이상 이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므로 사회가 적극적으로 이혼예방과 동시에 건강한 이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ilsa, B., & Rosemary, D. (2000). Parental divorc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arly adult intimate relationships: A longitudinal Australian study.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3(1/2), 91-109.
-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adult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43-58.
- Amato, P. R. (2000).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269-1287.
- Amy, M. B. (2012). *Women's perspectives of the impact of childhood parental divorce on their own marriag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South Carolina, United States of America.
- Booth, A., & Amato, P. (1991). Divorce and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396-407.
- Cartwright, C. (2006). You want to know how it affected me? Young adults' perceptions of the impact of parental divorce.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44(3-4), 125-143.

- Chae, S. M., & Lee, Y. S. (2011). Influence of emotion, ego strength,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of the divorced-family adolescents,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5(1), 1-16.
- Cho, H. S. (1978). *A comparative study on the adaptation of the home environment and family child defici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Cho, S. H. (2010). *A Study on the Social competence of adolescents with divorced fami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Cho, Y. W. (1999). Qualitative research. Gyeonggi-do: kyoyookbook.
- Choi, K. I. (2007).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ingle-parent with their adolescent children. *Korea Youth Research*, 14(4), 145-168.
- Choi, Y. S. (1999). Collecting qualitative data. *Anthropology of education*, 2(2), 1-22.
- Hetherington. E. M. (1989). Coping with family transitions: Winners, losers and survivors. *Child Development*, 60, 1-14.
- Hetherington. E. M. (1993). An overview of the Virginia longitudinal study of divorce and remarriage with a focus o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18.
- Hwang, H. J., Cheon, H. Y., & Ock, K. H. (2010). The path analysis of parental divorce on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through child-rearing behaviors and children's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7), 99-110.
- Jacquet, S. E., & Surra, C. A. (2001). Parental divorce and premarital couple: commitment and other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 627-638.
- Jang, D. H., & Jang, K. A. (2009). The effects of family protective factor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of divorced par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4), 5-24.
- Jessica L. B., Sandra L. C., & Mary E. L. (2007). The effects of parental divorce o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6(3-4), 83-104.
- Ju, S-H. (2003). Children's beliefs on parental divorce and children adjustment problem on parent's post-divorce, *Korea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2, 179-210.
- Ju, S-H. (2007). Parental divorce and their children's adjustment: Focusing on parent-children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as a mediator, *Korea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3), 179-136.
- Jung, H. S. (1993). Adaptation of the children of divorced parents. *child studies*, 14(1), 59-75.
- Jung, S. W. (2008). *Qualitative research on the family dissolution experience of divorced family adolescents: Focusing on female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ngnam University, Gyeonggi-do, Korea.
- Katia E. R., Debra A. H., & Lauren A. E.(2014). Parental conflict during divorce as an indicator of adjustment and future relationships: A retrospective sibling study.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55(2), 117-138.
- Kim, H. J. (2004).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From the life history perspective,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 7-26.
- Kim, H. S. (2012). A Case study on the adjustment and resilience of Korean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Protective and risk factors. *Korean Education Inquiry* 30(4), 117-135.
- Kim, N. H. (2006). Problems and strategical reaction experienced by unmarried daughters in divorced mother-headed. *Studies on Single parent*, 1(1), 61-92.
- Kim, T. E. (2015). *A study about resilience of adult-children who experienced parental divor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 C., & Han, K. W. (2012). Life story research's character and meaning as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ha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18(3), 5-43.
- Kim, Y. S., Park, J. H., & Choi, J. W. (2010). Children of divorced family. Seoul: Inner books.
- Kurdek, L. A. & Siesky, A. E.(1980).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divorce. *Journal of Divorce*, 3, 339-379.
- Kweon, J-S., & Park, I-S. (2002). Life experience of maternal absence to the adolescent boys living with father,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8(1), 86-96.
- Lee, H. S. (2003). Early adolescents'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Relations with parental divorce and parenting practices, *Korean Journal of*

- Youth Studies*, 11(4), 421-441.
- Lee, J.-R., & Kim, H.-S. (2007). A case study on the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The Journal of Education*, 27(2), 159-181.
- Lee, M. J., & Choi, S. G. (2011). Changes in family structure, environmental demographic change,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Lee, S. Y., & Kim, C. K. (2003). Study on the related factors of divorce crisis adaptive behavior teen. *Youth Behavior*, 8, 1-18.
- Mahl, D. (2001). The influence of parental divorce on the romantic relationship beliefs of young adult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34(3/4), 89-118.
- Nam, Y.-O. (2010). A comparative study on the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Studies on Korean Youth*, 21(3), 219-243.
- O, S.-H. (2001). A comparative study on determinants of adolescents' adaptation in broken family: Focused on the cause of family break-down. *Studies on Social Welfare*, 17, 99-126.
- Ok, S. W., & Sung, M. A. (2004). A study of divorce adjustment of divorced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30s -Focus on Life Satisfaction and Health-.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2(11), 167-187.
- Park, H.-S., & Yon, M.-H. (2004). A study on the process of children's adjustment following a parental divorc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2(2), 11-29.
- Ross, C. E. (1999). Parental divorce, life-course disruption, and adult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4), 1034-1045.
- Sanders, M. R., Halford, W. K., & Behrens, B. C. (1999). Parental divorce and premarital couple communica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 60-74.
- Seo, J. S. (2013). Korea contemporary history in photos and pictures, Gyeonggi-do:Woongjin.
- Son, J.-Y., & Han, G.-H. (2007). Marital quality, barriers to divorce, everyday stress and post-divorce adjustment : focused on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24(1), 83-102.
- Song, J. H. (2010). *Middle school students' experience and adjustment process about parental divor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buk, Korea.
- Song, O. S., Kim, C. H., & Kwon, H. C. (2008). A qualitative analysis on the experiences of parent/divorced college students; with a focus on resilienc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1), 15-33.
- Statistics Korea. (2015). Marriage divorce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aSeq=352515
- Wallerstein, J. S. (1991). The long-term effects of divorce on children: A review.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3), 349-360.
- Yang, H. W., Jun, M. H., & Kim, H. S. (2014). Children of divorce: A group program in community welfare centers.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2(2), 173-204.
- Yoo, C. I. (1998). Method of life history -data collection & analysis of text-. *Korean Journal of Nursing Query*, 7(1), 186-195.
- Yoo, H.-J. (2001). The impact of parental divorce and conflict between parents on the adaptation of college-age children, *Family and culture*, 13(2), 52-78.
- Yoon, M. S., Lee, M. S., Kim, N. H., & Jeong, H. S. (2012).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ss and depression among children in divorced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5(3), 73-104.

Received: May 15. 2016

Revised: August 21. 2016

Accepted: August 25. 2016